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

말씀 : 로마서 10:1-21

요절 : 로마서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그의 선하신 주권적 선택과 긍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로마서 9-11장 말씀의 주제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후반부(30-33)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은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히 지적함과 동시에 구원역사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을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구원에 이르는 길(1-13)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1,2)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원수처럼 대적하며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마음으로 간절히 열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긍휼을 의지하여 쉬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의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5)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란 레위기 18: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명령(레18:1-4)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5을 기초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언을 내 율례” 라는 율법의 별칭이 생겼는데 이 말이 구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느9:29, 겔 20:11,13,21) 여기서 ‘살리라’는 말의 의미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심판 받지 않고 구원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게 되지만 어기고 범죄 하는 영혼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겔 18:4,9,17,19,20,21) 이를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문제는 삶과 죽음, 생명과 심판을 판가름 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의 길을 구하러 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19:17) 이처럼 율법이 삶과 죽음,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한 그 정신 자체는 매우 훌륭한 것이고 우리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에 있어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2)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는데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이스라엘은 글을 배우면(6세 무렵) 모세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항목을 정하고 그것을 일일이 실제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만 해도 그 규례를 적은 책이 두 트럭분이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아파트에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멈춥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바쳤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모든 성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출 23:17)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2)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참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조상들이 만들어 낸 유전적 지식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열심은 무지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근거한 올바른 열정이어야 합니다.(딤후2:15)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의미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 할 것 같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행22:3) 그는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당을 박멸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진두지휘를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야말로 유대교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원정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 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는 오히려 주님을 꺾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나뭇대로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의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주장만 내세우려고 하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3b)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삼상15:22) 결국 이스라엘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기 나뭇대로의 열심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정도를 벗어나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정도에서 절룩거리며 가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4)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4절을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17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1:2-4) 이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로서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3:22) 사람들에게 의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3:23,24)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3:25,26)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3:27)

이 믿음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4)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는 후견인(몽학선생) 역할을 하였습니다.(갈3:24)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형벌을 대신하여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달음박질해도 행위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며 헛된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6,7)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요구하는 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요구하는 바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말하지도 않습니다. 무저갱에 내려가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무저갱(無底坑 the deep)에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선행을 쌓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것은 스스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행을 쌓아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8)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산 속 동굴에 갈 필요도 없고 바다 너머 산티아고 순례 길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의는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 곧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의 일꾼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9,10)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Jesus is Lord -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할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Jesus is Lord! 이 고백은 1세기 로마제국과 충돌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Lord는 황제 가이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은 황제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황제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로마황제 가이사가 아무리 커다란 부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참된 주가 되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시인해야 합니다.

②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구원의 길은 아주 쉽고 단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늘에 오르고 무저갱에 내려가는 극한의 투쟁과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굳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영어로 ‘confess’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황제를 신격화하여 ‘주’로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작은 식민지 국가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청년을 ‘주’로 시인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박해를 받고 화형을 당하거나 원형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백 년 동안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입으로 공개적인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나의 의요, 자라는 예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리실 분이요,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하게 신앙고백을 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이때 베드로가 힘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듯이 너무나 쉽게 시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 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지 때 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천왕 숭배를 강요당했으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구차하게라도 살 수 있었던 삶을 잃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폰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총독의 위협 속에 ‘주님은 평생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하며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시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히틀러 생일날이었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남학생 둘이 총기를 난사해 13명의 학생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범인은 18살의 에릭 헤리스와 17살의 딜런 크레볼드인데 창문을 부수고 교실에 난입하여 총을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책상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때 범인들이 책상 밑에 숨어 있는 학생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17세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범인들은 다가와 목에 총을 들이대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캐시는 똑바로 쳐다보며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 그 고백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십 발의 총알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가 믿

는 하나님 곁으로 보내주마” 그날로 케시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17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가 그렇게 당당하게 무서운 총구 앞에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의 말에 의하면 케시는 본래 불량학생이었습니다. 마녀 서클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일삼고 심지어 ‘부모를 죽여 버리겠다.’고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사건이 있기 2년 전 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케시는 완전히 딴 아이가 되었습니다. 케시는 집에 돌아온 후 엄마를 붙들고 “엄마,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변화되었어요. 저는 이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하면서 틈만 나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케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총구 앞에서도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후 케시의 어머니는 “She said yes” 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큰 감동을 받고 “Yes! I believe in God” 이란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점심시간마다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기꺼이 생명을 바쳐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고수한 신앙고백이 거기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신앙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32,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यो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한 사모님이 대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출발하자 불신자였던 아버지로 부터 모진 핍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포기할 것을 회유하다가 안 되자 막대기로 딸의 허벅지를 인정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막대기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자 이번에는 굵은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막대기로 내리칠 때만해도 딸은 의지로 버티고 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굵은 몽둥이를 바라보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므로 신앙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서 끝까지 견디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내리 치고자 하던 몽둥이를 내려놓으셨고 ‘아! 내 딸의 신앙은 진짜로구나’ 하며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로 한 번도 딸의 신앙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캠퍼스 목자로 잘 살게 되었다는 실화(實話)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11)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믿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4:12)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죄와 사망권세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운명과 무력하고 연약한 삶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벗어날려야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열등감과 교만, 미움과 시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죄악의 물결에서 구원을 얻고 인생의 여러 문제와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의지하는 주의 이름은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기에 참된 희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력과 스피릿이 충만한 때를 보면 이 구원의 도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도리를 기억할 때 이기심과 세상 욕심을 넘어 긍휼을 품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구원이 쉬워도 되는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처럼 보이게 하는 말씀이라며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증언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누구든지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에 누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 할 거야!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소망을 끊어버렸거나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누구든지’에 넣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희망을 담은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의 『레미제라블』을 보면 죄 사함 받은 의인 장발장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베르 경감이 아주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 중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장발장이 더 클 것입니다. 장발장은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와 신부의 관저에서 은그릇을 훔친 죄를 범했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신분증을 찢어버린 죄를 범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베르 경감은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신분을 숨긴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베르 경감이 마지막에 자살을 했을까? 그는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죄수인 장발장에게 목숨을 구걸당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장발장도 죄인이요, 자베르 경감도 죄인인데 장발장에게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장발장이 분명히 은그릇을 훔쳤는데 자신이 준 것이라고 그를 감싸주고 용서해 준 그 신부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장발장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베르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너무나 차갑고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누가 다가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구원의 길이 쉽다는 것,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 행위가 아니라 입과 마음의 문제라는 것, 부끄럽지 않다는 것, 주님의 부요함을 체험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

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기에 이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II.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14-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14,15)

여기서 우리는 말씀 전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전파자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52:7)

어떤 발이 아름답습니까? 각질을 벗겨내고 스킨로션을 바르고 매니큐어로 예쁘게 단장한 발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백악골과 빛고을 각 캠퍼스와 전 세계 캠퍼스로 나아가는 우리 1대1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이 발은 평소에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발이지만 말씀 전파를 위해 심방을 가거나 선교사로 나아갈 때는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럼 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전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님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높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두 발로 내려 오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들린 자 고통 받는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직접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외롭게 홀로 앉아 있던 세리 마태를 심방하여 부르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도 가셔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6천 마리 때 귀신들려 무덤을 집을 삼아 살던 거라사 귀신들린 자(광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과 들과 바다를 가리지 않으시고 상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생명구원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직접 두 발을 움직여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찢어지고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고 마침내는 대못에 박혀서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예수님은 거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양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 와서 말씀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코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빛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UBF가 성서한국 세계선교의 기치를 들고 꾸준히 본국과 세계 캠퍼스 개척에 힘쓸 때 95개국에 1,800여명의 선교사가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들의 아름다운 결단과 삶을 받으시고 만민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 짓는데 발을 바빠 움직입니다. 호프집이나 게임방에도 발로 가고 남의 집 담을 넘을 때도 발로 뛰어넘고 군대에서 졸병들을 괴롭힐 때도 주로 발로 차고 나이트클럽에서 스텝을 밟을 때도 발을 사용합니다. 이런 발들은 모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박지성의 발보다 캠퍼스를 오르내리며 전도하는 우리 청년들, 목자님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보다 우리 사모님들의 발이 더 아름답습니다. 간호대 점심모임을 이루기 위해 힘써 간호대를 오르내리는 이다니엘라, 문조세핀 목자님들의 발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발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UBF로 초청하신 일대일 목자님도 두 발로 나를 피싱을 하러 오셨고 그 후에는 심방 오셨습니다. 강의실로 실험실로 때로는 군대 가 있는 곳으로 심방을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두 발을 움직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나 선교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봄 학기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발들을 통해 2020년 새로운 양들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파라과이 이마리아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분의 남편인 이요한 선교사님은 파라과이 땅에서 선교하다 피한이 쓴 총에 맞아 나중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마리아 선교사님은 과부의 몸으로 그 파라과이 땅에 가서 선교 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편을 총으로 쏘아 죽인 나라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본국에 두고 남은 여생을 파라과이 양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서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전도를 하다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가? 더구나 지금은 최첨단 정보화시대요, 디지털시대인데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 원시적(原始的)인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Grant) 선교사는 8개 국어를 구사하며 뉴욕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수재가 19세기 후반 지도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는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자 다들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예수회 출신 카톨릭 신부들이 수 없이 순교를 당했고 조선인들은 너무나 미개하고 야만적이기 때문에 조선선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는 그 미개한 조선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1885년 4월 5일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글씨도 잘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선 백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전도여행을 하다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번 하기도 하고 동상에 걸려 발을 자를 번 하기도 하고 폭도들을 만나 맞아 죽을 번 하기도 하는 등 술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 100년 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영적인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6-21절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소수만이 믿었을 뿐 대부분은 이사야 때처럼 거기에 순종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건성건성 듣고 대충 생각하고 결국은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16)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셨지만 주님께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주님을 배반하여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21)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 받는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별처럼 빛나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